

강원 저수율 전국 최저... 작물도 농심도 바짝 말랐다

✎ 최현정 | ㊟ 승인 2025.07.09 | □ 5면

도 50% 뿐... 속초·삼척 30% ↓
강릉 6월 강수량 평년비 84% ↓
가축 죽고 작물 말라 피해 심각



고성군과 속초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고성 원암저수지가 타들어 가듯 바짝 말라가고 있다.김주현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8일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원 지역 저수율은 50.2%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초(23.8%)와 삼척(29.6%)은 물이 바닥을 드러낼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양(35.1%)은 '경계', 강릉(35%)과 고성(36%)은 '주의' 단계를 보였다.

농민들은 물을 끌어올 곳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강릉 주문진에서 벼농사를 짓는 정모(71) 씨는 "비도 안 오고 하천에도 물이 없어 동료들끼리 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대안책이 없을 정도"라며 "이대로라면 작황 90% 이상이 박살 날 수준"이라고 낙담했다.

삼척 하장면에서 양채류 농사를 짓는 박병주(58) 씨는 "주변 농민들 모두 '작물이 타 죽어갈 지경'이라고 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속초의 경우, 이달부터 물을 대고 병해충 약제 처리를 해야 하지만 논에 물을 대지 못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수확을 시작한 감자, 옥수수가 제대로 크지 못해 생육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축산농가도 시름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강릉시 주문진읍·사천면·강동면 3개 지역의 돼지 농가에서는 돼지 45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같은 가뭄은 강수량 부족과 연일 지속되는 고온 건조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올해 강릉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234.9mm로, 평년값(486.2mm)의 48.3%에 그쳤다. 6월 강우량은 18.6mm로, 평년 동월(118.5mm)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8일 황성은 낮 최고기온이 38.5도까지 치솟았고, 춘천 36.2도, 원주 35.4도, 강릉 29.6도 등 도내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율 대처를 위한 급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북지사는 가뭄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고, 관할 저수지와 급수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관정 파기 등 용수 공급을 위한 재해 예방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인 용수시설 346곳을 점검하고, 양수 장비 58대를 읍·면·동에 전진 배치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양수 장비도 즉시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 농업용 관정 37공과 스프링클러, 양수기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하천에서 물을 끌어 올려 저수지를 채우거나 지대가 높은 경우 용수로에 직접 급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